

- **주요 뉴스:**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 트럼프 대통령은 대안관세 부과 예고
 - 미국 4분기 GDP 상승률 1.4%로 둔화. 12월 PCE 물가는 예상치 상회
 - 일본 총리, 식음료 소비세 면제 계획과 적극적 재정정책 강조
 - 미국, 이란 정권교체 등을 고려한 제한적 공격 검토
- **국제금융시장:** 미국발 관세부담 완화 기대감과 추가 관세정책 우려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7%],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관세 하락과 환급 기대감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도 대미 수출부담 완화와 종합 PMI 개선 등을 반영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안하 기대감 약화 등이 영향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PCE 물가지수 발표 등으로 상승
독일은 보합, 영국은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45.1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6.4원, 0.01% 하락). 한국 CDS 보합

		2/20일	2/19일	전일대비			2/20일	2/1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909.5	6,861.9	+0.69%	국채 금리 10y	미국	4.08%	4.07%	+1bp
	유럽	630.56	625.33	+0.84%		독일	2.74%	2.74%	+0bp
	중국	휴장	휴장	-		영국	4.35%	4.37%	-2bp
	일본	56,826	57,468	-1.12%	CDS 5y	한국	23bp	23bp	+0bp
	한국	5,808.5	5,677.3	+2.31%		중국	43bp	44bp	-1bp
환율	달러지수	97.79	97.93	-0.14%	위험 지표	EMBI+	-	262	-
	유로화	1.1784	1.1773	+0.09%		VIX	19.09	20.23	-5.64%
	엔화	155.05	155.01	-0.03%		WTI유	66.39	66.43	-0.06%
	위안화	휴장	휴장	-	원자재	구리	587.0	576.0	+2.29%
	원화	1,446.6	1,448.9	+0.16%		금	5,107.5	4,996.1	+2.2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 트럼프 대통령은 대안관세 부과 예고

- 미국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면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발언. 다만 해당 조치는 최대 150일까지 적용 가능하여 추가 대안이 필요. American Action Forum 등은 무역법301조, 관세법338조 등을 근거로 관세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 미국 수입업체들은 1,750억달러 이상의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나, 환급 의무와 방식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 이미 '25.2월 이후 1,800여개의 기업이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판결 직후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도 가정과 기업에 관세를 돌려주라고 촉구
- JPMorgan, Citizens 등은 관세 폐지가 수입·소매기업 등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어 긍정적이나, 대체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설명. Osaic는 국 소비자, 기업, 외국 수출업체들 중 누가 관세를 부담했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 영국 등은 미국과의 우호적 무역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의 영향을 파악해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 다만 Lakefront 등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이 지연되는 등 금번 판결로 인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일본 총리, 식음료 소비세 면제 계획과 적극적 재정정책 강조

- 다카이치 총리는 식음료품에 대한 8%의 소비세를 2년간 면제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반도체 등의 미래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 또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설명
- Asia Group은 지출 확대, 세금 감면과 부채 관리에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으며 실제 정책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 한편, 일본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전월(2.1%) 및 예상치(1.6%)를 하회

■ 미국 4분기 GDP 상승률 1.4%로 둔화. 12월 PCE 물가는 예상치 상회

- 작년 4/4분기 GDP(속보치)는 1.4% 증가하여 3분기(4.4%) 및 예상치(2.8%)를 크게 하회. '25년 연간 성장률은 2.2%를 기록.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투자가 견조한 반면, 정부지출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분석
- 작년 1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3.0%, 0.4%로 각각 예상치(2.9%, 0.3%)를 상회. 12월 개인 소득 증가율은 0.3%, 개인 지출 증가율은 0.1%로 예상치에 부합
-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민주당의 섣다운 등이 GDP를 2%p 깎아내렸다고 비난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 다만, Oxford Economics 등은 국내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상승률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분석

■ 미국, 이란 정권교체 등을 고려한 제한적 공격 검토

- Reuters는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과 함께 특정 지도자를 표적으로 한 공격 계획을 구체화하였다고 보도.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한적인 공격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 미국, 발전소 대기오염 규제 완화하여 에너지 생산량 확대

-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과 유해 독소를 제한하는 대기오염 방지 규제를 완화하여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 EPA는 해당 조치가 연간 6,900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 다만 환경단체 등은 규제 완화로 인한 공중 보건 비용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박

■ 세계식량계획, 자금 부족으로 소말리아 등의 지원 중단 우려

- UN세계식량계획(WFP)은 추가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소말리아의 수백만명이 기아가 악화될 수 있다며 9,500만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촉구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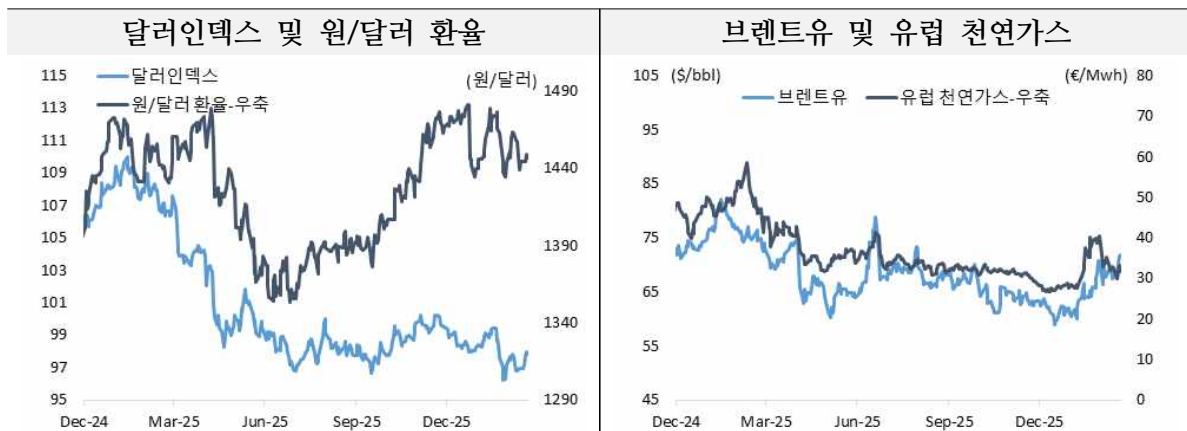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2/23~27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25일), 1월 생산자물가지수(27일)
- 중국 대출우대금리(24일), ECB 1년·3년 기대인플레이션율(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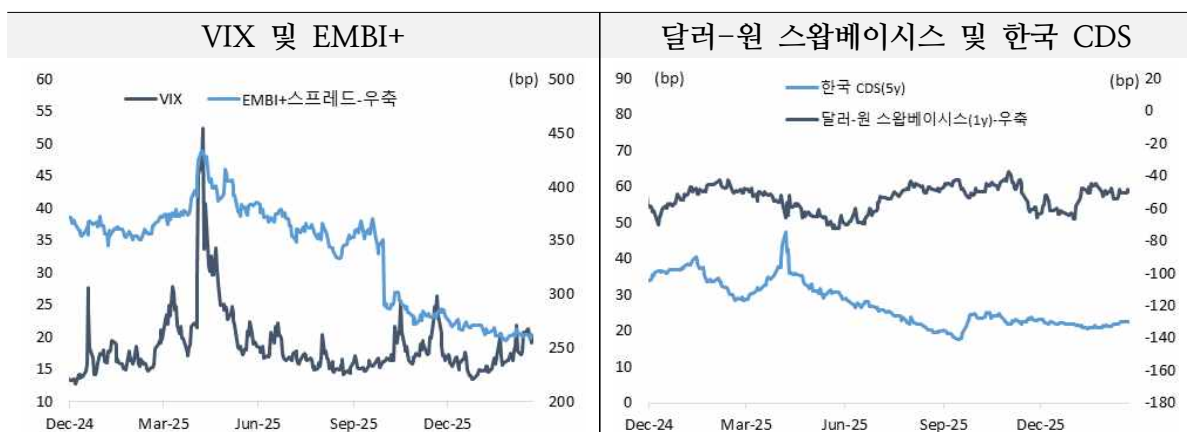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31, E-mail jgbaek@kcif.or.kr